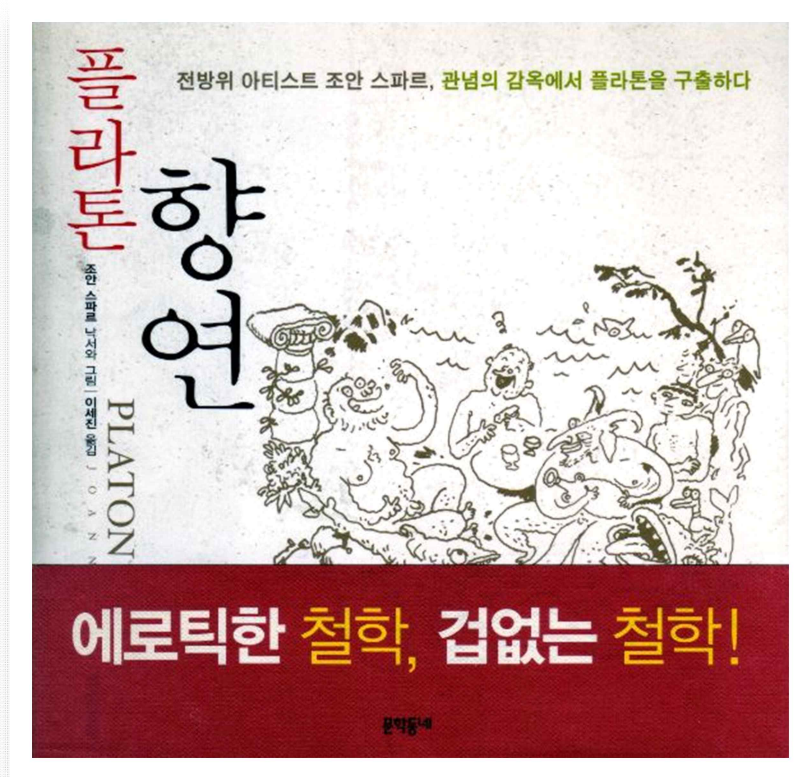


삽화로 풀어가는 '사랑'과 '미'의 진실, 조안 스파르의 『향연(饗宴)』

(예술정보센터 소장 자료, 184 플291하)



서평자가 여러분들께 권하는 이번 책은 『향연(饗宴)』이라는 플라톤의 저서 *Symposion*의 번역서(조안 스파르, 『플라톤 향연』, 이세진 역, 문학동네, 2006)이다. 아니 엄격히 말해, 플라톤 저서의 번역서라기보다는 교양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전문적 식견으로 무장한 해제서(解題書)라고 할 수 있다.¹⁾ 왜냐하면 이 책은 플라톤의 원작 저서 『향연』을 단순히 번역하는데 그치지 않고, 플라톤 텍스트의 여백에 19금(禁) 수준의 원색적이고 풍자적인 그림을 끼어 넣는 기발한 독법의 낙서를 곁들이며 저자 자신만의 독특한 철학적 사색의 유희를 즐기고 있기 때문이다.

1. 플라톤의 저서 중 『향연』은 어떤 대화록인가?

35편의 플라톤 대화록²⁾은 거의 부제(副題)를 달고 있다. 이 대화록 『향연』³⁾ 역시 「에로

1) Joann Sfar, *Le Banquet*, Paris: Éditions Bréal, 2002

2) 플라톤은 그의 철학사상을 딱딱한 문어체로 기술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 오늘날 드라마 극본처럼 등장인물이 서로 주고받는 대화체로 서술했으며, 때로는 생물연도가 서로 맞지 않는 인물들을 가상

스(사랑)에 대하여」(Perí érotos)라는 작은 제목이 붙어 있다. 제목과 부제목에서 주는 야릇한 인상 때문인지, 이 책 『향연』은 플라톤 대화록 중 대중들에게 지금껏 가장 많이 읽히는 철학 서적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유가 이것뿐이겠는가? 서양지성사에 있어서 2,500여 년 동안 수많은 철학자에게 영감을 불러일으킨 원천⁴⁾으로서 플라톤의 대화록 중에 가장 아름다운 문체와 짜임새 있는 구성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향연』은, 플라톤 철학의 완숙기에 속하는 작품으로, 그의 초기 저작들이 스승 소크라테스의 철학을 수용·소개하는 내용에 머물고 있는 반면, 이 시기의 대화록들은 플라톤 자신의 고유 철학사상이 철철 넘쳐 흘러 플라톤 사유세계의 진수를 고스란히 맛볼 수 있기 때문이리라!

이 대화록은 소크라테스를 비롯하여 모두 8명⁵⁾의 인물이 등장한다. 이야기는 당시 31세 쯤의 나이인 아가톤이 연극 경연대회에서 그의 비극으로 우승하여 어느 날 친구들을 불러 축하연을 베푼 일과 관련이 있다. 즉, 『향연』은 그 때의 일을 아폴로도오로스가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들은 대로 다시 자신의 친구에게 전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대화록의 제목처럼, 등장인물들은 ‘함께 둘러 앉아 술을 마시며’ 그날의 이야기 주제인 ‘에로스’에 대해 돌아가며 자신의 의견을 제시한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그 누구도 에로스에 대해 정곡을 찌르는 의견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여긴다. 그리하여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순서에 이르러 무녀(巫女) 디오티마의 입을 빌어 ‘상승의 형이상학적 에로스론’⁶⁾을 펼친다. 이 대화 과정 전체는 일종의 변증법으로 소위 산파술(産婆術, maumatikē)이라는 것인데, 이는 소크라테스의 트레드 마크인 문답법(dialectikē)으로 잘 알려진 바 있다.

현실세계에서 출발해서 차츰 형상세계로 나아가는 구성을 취하며 감각적인 것으로부터 예지적인 것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사랑(eros)과 아름다움(美)의 주제로 풀고 있는 이 대화록의 백미는 단연 미의 이데아(tou kalou idea)를 감득하는(theoria) 부분이다.

“이상은 사랑의 비의(秘儀) 가운데 몇 가지인데, (...) 올바른 길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이 일을 어려서부터 시작해야 하며, 또 아름다운 육체에 접근해야 하는 것입니다. 맨 먼저는 그의 지도

으로 등장시켜가며 자신만의 독특한 문체로 철학사상을 펼쳤다. 이런 이유로 해서, 그의 철학 전집은 『대화록』(Plato's Dialogues)이라고 칭하며 철학 외의 분야인 문학사에서조차 그의 저작을 당당하게 취급하고 있을 만큼 그 문학적 예술성을 인정받고 있다.

- 3) 그리스어의 원래 책 명칭인 *Symposion*은 ‘함께’(sym) ‘마신다’(posein)의 뜻을 지닌다. 한국어 번역서 중에는 원제목의 의미를 충실히 살려 『술잔치』 혹은 『잔치』라는 번역 제명(題名)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향연』으로 번역하고 있다.
- 4) 사실, 현대철학자 화이트헤드(Alfred North Whitehead, 1861~1947)는 서양철학 전체를 “플라톤 철학의 주석에 불과하다.”(*Process and Reality*, 1929)라는 유명한 말을 남겨 서양철학사에 있어서 플라톤 철학의 위치를 독보적으로 인정하였다.
- 5) 『향연』은 아리스토텔레스(소크라테스의 진정한 제자라고 자처하며 소크라테스를 흉내 내며 늘 맨발로 다닌다.), 아가톤(아테네의 비극작가), 파이드라스(신경쇠약에 걸린 작가이자 변론술 애호가), 파우사니아스(소피스트인 프로디코스의 제자), 아리스토파네스(아테네의 희극작가), 에뤼크시마코스(의사), 알키비아데스(귀족 정치가) 등의 인물이 등장한다.
- 6) 모든 인간에게 스며들어 있는 ‘수호 영혼’(精靈, guidance spirit)인 에로스는 지상의 사랑으로부터 천상의 사랑으로 ‘혼의 등정’(psychē anodos)을 행하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자가 바르게 지도한다면, 한 육체를 사랑하며 거기서 아름다운 언설(logos)을 낳아야 합니다. (...) 그 다음엔 정신의 아름다움이 육체의 아름다움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 이와 같이 하면, 그는 더욱 우리의 여러 가지 제도와 법률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찾아보게 되며, 그 모든 아름다움이 결국 하나의 동일한 연줄로 서로 결부되어 있음을 이해하게 되며, 따라서 육체의 아름다움이 보잘 것이 없는 것임을 잘 알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는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아름다움을 하나의 전체로서 바라보도록 하여, 다시는 노예처럼 한 가지 것에 얽매어 한 소년이나 한 인간이나 혹은 어떤 한 가지 일에만 만족하여 구차스럽게 되며 속이 좁아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는 아름다움의 큰 바다로 나아가 그 바다를 바라보는 가운데 풍부한 애지심에서 많은 아름답고 숭고한 연설과 사상을 낳아 마침내 이런 가운데서 힘을 얻고 성장하여, 하나의 지식, 즉 내가 말하려는 바와 같은 아름다움에 관한 지식을 터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210a ~ 210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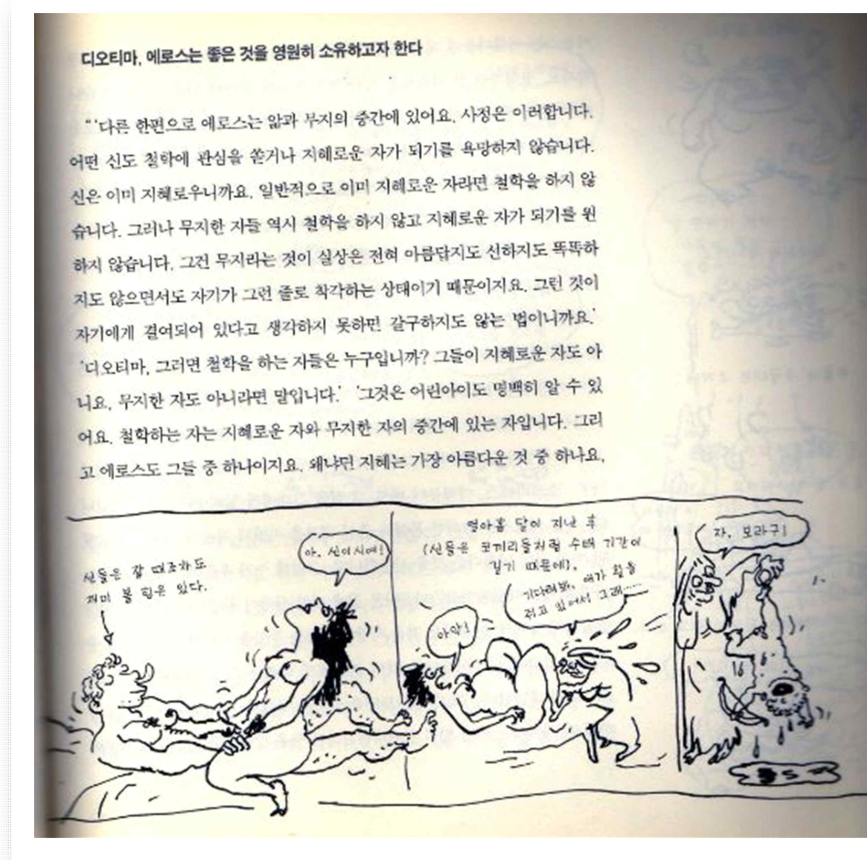
이 대목에서, 플라톤은 미의 이데아에 이르는 실로 엄청난 사랑의 힘을 묘사하고 있다. 즉,

“아름다운 것들을 올바른 순서로 바라보면서, 여기까지 사랑의 길을 인도되어 온 사람은 이제 그 궁극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데, 갑자기 그는 그 본성이 놀라운 하나의 아름다움을 따라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오! 소크라테스, 아름다움 자체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의 고난을 참고 견디어 온 바로 그 아름다움입니다. (...) 즉, 이 세상의 개개의 아름다운 것들의 출발하여, 제 아름다움을 향하여 위로 올라가되, 마치 사다리를 올라가듯 하나의 아름다운 육체로부터 두 개의 아름다운 육체로, 또 둘에서 모든 아름다운 육체로 나아가고, 아름다운 육체들로부터 아름다운 일과 활동으로 나아가고, 활동에서 아름다운 학문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아름다운 자체만을 아는 것인 완전한 학문으로 나아가, 마침내 아름다움의 완성체로 함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여기 이르러, 그리고 여기에서만 아름다움 자체를 바라봄으로써만 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210e ~ 211d)

이렇듯 플라톤의 대화록 『향연』은 ‘미’에 이끄는 인간의 본성, 즉 ‘에로스’에 인도되어 미를 단계적으로 바라보며 마침내 ‘미 자체’를 흠모하는 인생에 대해 그 가치를 철학적으로 제시해 주고 있다. 특히 플라톤의 다른 저작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분량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고도의 은유와 함축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에, 이 대화록은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미의 실체가 무엇인지 또 그러한 미가 사랑과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곱씹게 해준다. 이런 이유로 해서 『향연』은 이 방면에 최고의 고전(古典)이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미학의 분야에 있어서는 미와 사랑에 대한 이와 같은 플라톤의 주장으로 인해 그를 ‘형이상학적 미학의 원류’로 평가하길 주저하지 않는다.

2. 철학책을 삽화로 풀어내다!

플라톤의 『향연』에 관한 연구서들은 무수히 많이 존재한다. 그 중 대부분의 연구서들은, 이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내로라하는 학자들이 자신의 견해를 주석으로 달며, 플라톤 철학을 꼼꼼히 파헤치거나 자신만의 스타일로 해석하는 수준 높은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 대열에 위치하고 있지는 않지만, 2002년 조안 스파르가 펴낸 『향연』은 여러모로 기존의 『향연』에 관한 연구서와는 차이를 드러낸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조안 스파르의 『향연』은 플라톤 『향연』의 텍스트를 여백삼아 원색적이고 풍자적인 그림을 끼어 넣는 기발한 독법과 낙서를 통해 '관념의 감옥에서 플라톤을 구출'하려는 야심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철학책은 어렵다'는 일반적인 통념을 깨려는 듯, 어려운 내용에 저자 특유의 유쾌함으로 쉽게 접근하며 원 저작에 예의를 갖추지 말 것을 강조하는 듯하다. 마치 플라톤 『향연』의 고전적 아우라를 걷어내고 코믹 예로 버전 철학극으로 변신을 시도하는 듯하다. 얼핏 보면 가벼워 보일지도 모르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톤을 유지하고 있는 점이 이 책의 장점이라!



플라톤 『향연』에 대한 조안 스파르의 이 특이한 해석서는 저자 자신의 경력에 유래한

다. 왜냐하면 저자는 프랑스 니스 대학에서 철학전공으로 석사학위를 받은 후, 다시 미술대학(에콜 데 보자르)에 입학하여 미술을 익혔다. 그리고 난 뒤, 저자는 이 경력을 바탕으로 파리의 소규모 출판사 라소시아시옹을 설립하고 전문 삽화가로 활동하며 자신만의 융합된 전공(철학, 미술) 능력을 살려 삽화로 구성된 전대미문의 철학 해제서를 출간했기 때문이다.

이 책은 전체적으로 다소 거칠지만 정확하게 표현하는 그림체로 플라톤 『향연』의 인물들에 풍부한 표정과 개성을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플라톤의 문장을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자유로운 상상력을 펼치며 원작이 지니지 못한 내용까지도 포괄하는 다양한 뉘앙스를 제공한다. 다만, 원 저작의 고유 번호(172a ~ 223d)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은 철학을 전공한 학도로서의 태도에 못 미치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싶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연계·순환·통합의 창작교육마당에서 자신의 뜻을 펼치고 있는 여러분들께 융합교육에 의한 성공적인 독창적 작업의 한 손색없는 예시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 승 건 (예술창작기초학부 교수·미학)